

화순 능주초,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사골 어울림 마당' 행사

어린이날 맞아 학생·학부모·지역민 등 함께 어울려 강당서 진행 학부모와 함께 터져라 풍선·에어특공대 게임·낙하산 달리기 참여

화순 능주초등학교가 지난 4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목사골 어울림 마당 행사를 계획하여 다양한 게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어울림 마당은 학부모님들과 학교운영위원장, 능주초학부모회 회장, 능주초총동문회 회장, 능주초총동문회 사무총장, 능주초총동문회 장학부회장 초대하여 함께 시작을 알리며 막이 올랐다.

특히 올해도 우리 학교 유치원생 포함 전 교생에게 4백 30만원 상당 반팔티셔츠를 기부해주신 능주초총동문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배와 후배의 만남으로 덕담을 들을 수 있었다.

어울림 마당 1부에서는 장애물 달리기, 위로 아래로, 터져라 풍선, 줄다리기 경기가 펼쳐졌고, 2부에서는 에어특공대, 낙하산 달리기, 카드 뒤집기, 이어달리기 경기가 펼쳐졌다. 학부모들은 터져라 풍선에서 풍선을 향해 힘차게 고무공을 던지며 참여했고, 에어특공대 게임에서 대형 천 밑으로 부풀어 오른 공기 빠기를 팀 대표로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낙하산 달리기 게임에서 힘차게 반환점을 돌아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울림 마당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비가 와서 운동장에서 못하고 강당에서 하니깐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뛰며 응원하니 재미 있었다"고 말했다. 선서 대표로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선서대표로서 선서문을 읽는데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며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운동회인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담당교사는 "어울림 마당을 준비하는데 동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마무리 된 것 같아 고맙다"고 말했다.

서재숙 능주초 교장은 "어울림 마당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과 능주초총동문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며 우리 학생들이 평소 즐기던 어려운 게임 활동을 친구들과 해봄으로써 몸과 마음이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 삼향북초, 어버이날 맞아 다양한 행사 진행



삼향북초등학교에서는 지난 4일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꽃바구니·무드등·어버이날 감사패 만들기 등

꽃바구니, 무드등, 어버이날 감사패 만들기 등의 학생 활동이 생동감 있게 펼쳐졌다.

삼향북초는 전교생 38명의 작은 학교이다. 이렇게 학생수가 적은 것은 다양한 행사를 밀도있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크게 작용한다. 담임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선생님,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자청했으며 학생들 역시 부모님을 위한 멋진 꽃바구니를 만드는 데 즐거움을 느끼며 열심히 참여했다. 1

학년 학생은 "어버이날을 맞아 학교에서 다양한 만들기를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삼향북초등학교의 행사는 학생들의 열성적인 참여, 학부모들의 뜨거운 감동,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성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기대해볼 만한 삼향북초등학교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대 Grand ICT 연구센터, '실증기업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



구성되어있으며, 실증단지 입주기업이라면 신청항목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2,800만원(국비 50%, 자부담 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대는 '23년 스마트팜 실증단지 「실증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4월 14일, 4월 25일에 각각 경북 상주, 전북 김제에서 성공리에 개최했다.

국립순천대 Grand ICT 연구센터 여현 센터장(인공지능공학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공모한 스마트팜 실증단지 「실증기업 지원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실증기업 지원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한 스마트팜 관련 기술·제품 보유 기업에 실증 소요비용 지원을 통해 실증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북 김제·경북 상주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업 시행기관, 순천대는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 「실증기업 지원사업」은 실증비용 지원, 실증제품 개선지원, 성과활용 및 사업화 지원의 총 3가지 내역 사업으로

이 행사는 순천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증단지 입주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체제와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고 입주기업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순천대 지원사업 담당자는 "2차 지역인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실증단지의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결과에 따라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 중 하나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전북 김제는 20개 기업, 경북 상주에는 21개 기업, 경남 밀양은 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전남 고흥 실증단지는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완공과 함께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중진초병설유치원, 3년 연속 마을과 함께하는 캠핑놀이 운영

'유치원이 캠핑놀이장으로' 어린이날 특별한 선물

광양중진초병설유치원원장(임미현)은 지난 3일 마을과 함께하는 캠핑놀이를 실시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캠핑놀이는 유치원과 마을을 잇는 교육활동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날 실시된 캠핑놀이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캠핑놀이를 실외 캠핑놀이로 확장한 것으로, 유아들의 생각을 모아 캠핑놀이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준비과정에도 유아와 함께 참여했다.

캠핑놀이는 캠핑카 체험, 해먹타기, 캠핑음

식체험, 낚시놀이, 비눗방울놀이, 자전거타기, 보물찾기 등의 다채로운 놀이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캠핑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캠핑놀이장을 가득 채웠다.

유아들의 캠핑놀이를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이루어졌다. 캠핑카 기부, 캠핑장비 설치, 놀이 지원 등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학부모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마을활동가의 참여로 캠핑장이 북적였다.

광양=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